

# 東野彙輯 寫本 8冊

任 昌 淳

(泰東古典研究所長)

寫本 8冊, 前 延大教授 張志暎 氏의 所藏이다. 1959년 大邱 李在秀 教授가 이 책을 빌려다가 慶北大學校 師大 國語研究會의 名義로 油印하여 上下 2冊으로 낸 바 있다. 筆者는 아직 原書에 接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그 油印本에 依하여 本稿를 쓴다.

이 책은 1809년(순조 9년)에 李源命이 편찬한 것인데 傳來하는 野談을 모아 놓은 것이다. 우리 나라의 說話類는 그 由來가 상당히 오래다. 李相國集에 나오는 東明王篇의 내용이나 三國遺事에 실린 여러 說話 등도 사실은 史錄이기보다는 民俗說話에 해당되는 것이며 新羅殊異傳이 그대로 전하지는 아니 하나 역시 說話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상 인물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순수한 야담에 속하는 것도 李朝初期부터 상당히 나왔으니 姜希孟의 太平閑話 滑稽傳, 宋世琳의 禦眠橋, 蔡壽의 村中鄙語, 笑山子의 鍾離葫蘆 같은 것이 현재 전하는 것도 있고 없어져 버린 것도 있으나 대개는 原書는 없어졌을지라도 後人의 述錄에 이것이 대부분 옮겨졌으리라 믿는다. 柳夢寅의 於干野談은 史談과 野談이 반반씩 섞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뒤에 비교적 연대가 늦은 것으로 靑丘野談이라는 것이 있다. 이 책은 朝鮮總督府圖書 大正十年目錄에 20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대 奎章閣所藏으로 1책 缺本인 19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筆者는 직접 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같은 제목으로 6책으로 된 것을 大邱 李在秀 教授가 갖고 있는데 내용은 서울대 所藏本이나 거의 同一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 책과 靑丘野談을 비교하면 내용이 공통되는 것이 가장 많은데 그 제목을 붙인 것을 보면 野談에는 3字 내지 6~7자 정도로 글짜수를 고려하지 않고 붙인데 비하여 이 책에는 모두 7자씩 글짜를 맞추어 漢文小說에서 章回의 제목을 붙이는 예를 따라서 체계를 통일 하였다. 예를 들면 「仙女定室降需賢」「水軍都着揚武功」등으로 되어 있다.

卷首에 著者의 序가 있다. 末尾에 「屠維大荒落梧節駒城李源命識」라고 기록되었다. 屠維大荒落은 古干支로 己巳요 梧節은 七月이요 駒城은 龍仁의 薦號다.

李源命(1807—?)은 처음 이름은 源庚라는 雅明, 본

관은 龍仁이다. 1829년(순조 2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大司成, 京畿觀察使, 吏曹判書에 까지 올랐다. 뒤에 문정(文靖)의 시호를 받았다. 그의 저서가 있을 법도 한데 아직 조사할 길이 없다.

序의 내용을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의 野談을 수록한 사람은 계속하여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하여 얘기가 서로 어긋나고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유감스러웠다. 나는 於于野談과 記聞叢話를 보는 중 매우 흥미를 느끼어 주로 이 두 책을 근거로 하고 그밖에 다른 책을 참고하여 한편마다 小說의 체제에 따라 標題를 붙이고 얘기 하나가 끝날적마다 조그마한 형론을 달았다…」

이 序에서 말한 記聞叢話라는 것이 현재는 전연 알려지지 않으나 本書에 실린 說話는 그 대부분이 靑丘野談과 같은 것이 많음을 보아 記聞叢話도 靑丘野談과 同一本이거나 혹은 大同小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卷一 恩數와 儒賢의 二部가 있는데 恩數部에는 科宦에 관한 二項이 있고 儒賢部에는 道學, 賢才, 賢相, 名將 등으로 分類하여 모두 24項이 있다.

卷二 節義와 技藝의 二部로 나누었는데 節義部에는 忠節, 孝行, 貞烈의 3條로 分類하여 모두 13項, 技藝部는 文章, 書畫, 琴碁의 3條로 나누어 모두 12項 합하여 25項이다.

卷三 方術部에는 天文, 地理, 醫藥, 卜筮의 4條에 16項, 道流部에 仙術, 道人, 方士, 左道, 僧道の 5條에 모두 14項으로 총 30項이다.

卷四 : 性行部上 性行部下로 나누어 隱倫, 韜晦, 鑑識, 才智, 勇力, 氣槩, 權貴, 風流, 富饒, 流巧, 冠盜의 11條에 모두 40項이다.

卷五 : 人事部上 人事部下로 나누어 積善, 施義, 酬恩, 權術, 談諧, 報怨, 感化, 警戒의 8條에 모두 40項이다.

卷六 : 婦女部 하나뿐이며 德行, 奇婚, 佳緣, 異蹟, 智識, 才慧, 妬悍, 仇恨, 奇遇, 志操, 情義, 才技, 名唱의 13條에 모두 36項이다.

卷七 : 雜識部 唱和, 離合, 窮通, 遊覽, 奇蹟, 才能, 橫財, 殖貨, 報復, 義氣의 10條에 모두 20項이다.

卷八：述異部に 靈異，神奇，巫祝，遇邪魔，幽怪，異配，物感，報主，誠力，陰德 등 11條 22項이요 拾遺部に 相業，互諫，風情，規諷，怪事，警悟，仙蹟，清福，幻夢의 9條 18項 모두 40項이다.

그런데 卷의 次序에 있어서 다른 것은 별다른 것이 없으나 卷八의 첫머리에 卷15라 하였고 卷八의 後半에 卷16이라 하였으니 처음에는 各冊을 2卷씩으로 나누어 總 16卷으로 만들었던 것을 뒤에 傳寫하는 사람에 의하여 8卷 8책으로 만들면서 15, 16은 그대로 두었던 것 같다. 또한 卷 8의 첫머리에 「第一百十二局·述異部-」이라고 쓰여 있으며 그 이하 拾遺部の 最終項에서 「第三百十局」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原本에는 모두 部에 따라 局을 정하고 順次를 매겨 나갔던 것인 듯 하다. 現在 대로의 全體의 統계를 보면 12部 72條 255項에 달한다.

어쨌든 이것은 類書中 가장 방대한 것이며 수집한 범위로 보아 史談과 野談으로 著者が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두 망라된 듯하며 또한 이것은 量이 많은 책으로는 비교적 연대가 다른 것보다 늦게된 것임은 既述한 靑丘野談의 標題와의 相異에서도 알 수 있고 去來의 野談이 몇가지 유명한 사람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그 文章이 극히 졸렬하여 어떤 것은 제대로 成文이 되지 못한 것도 많았는데 著者が 이를 潤色하여 文章의 어색한 곳을 가다듬어서 그다지 눈에 설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도 또한 本書가 다른 책보다 年代가 멀어지는 것임을 추정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本書는 18世紀末까지의 類書를 總集成이라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높이 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 儒賢，性行，節義 등 條에는 대부분이 歷史의 人物에 관한 事實이다. 예를 들면 李舜臣，金應河，朴彭年，洪翼漢 등의 忠義，許浚，柳瑞 등의 醫術，洪純彥，柳鎮恒 등의 奇行 같은 것은 모두 實在한 人物들이다. 그러나 그들에 관한 說話라 하여 반드시 진실성 있는 사실로 보기는 수궁이 되지 않는

것도 많다. 또 어떤 것은 姓名은 분명히 나와 있으나 그가 歷史에 나타난 인물이 아닌 사람도 많다. 그러나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다하여 반드시 架空人物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金尙書某，湖西一士人，蔣都會 등 적당히 姓名 붙여서 애기를 진행시키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줄거리를 小說化하여 과장 부연한 것이 대부분이며 어떤 것은 民間에 傳하는 神仙，鬼神，抓怪，蛇妖 등의 說話를 사실화시키기 위하여 架空의 人物을 만들어 넣은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類書에서는 禦眼楮이라 村談解頤에 나오는 것과 같은 淫談이 상당히 있는데 이책에서는 그런 종류는 될 수 있는대로 끼어 넣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듯한 형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미 列擧한 部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부문에 걸친 奇談逸事를 모조리 망라한 만큼 우리의 史話，野談의 寶庫라 할 수 있다.

中國에서는 일찍 戰國時代부터 이런 문헌이 있어 莊子에 「齊諧志怪者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곧 怪談을 적어 놓은 齊諧라는 책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漢書藝文志에는 虞初의 周說 943편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였고 唐宋以來로 수없이 쏟아져나온 類書는 마침내 章回小說로서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도 古代부터 이 종류의 문헌이 있었음은 既述한 三國遺事，東明王篇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李朝時代에 이르러 儒學이 知識界를 지배하면서부터 이런 것을 稗官雜書라 하여 의식적으로 疎遠 내지 排除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수집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小說로서의 발전도 극히 미미한 상태로 명맥을 갖추었을 뿐이었는데 다행히 高官을 지낸 文臣의 손에 의하여 이 集成本을 남기게 되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우리의 풍속 신앙, 사상, 거기에 흐르는 민족의 정신을 탐구함에 있어 本書는 가장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또한 國文學을 研究함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7면에서 계속)

나 이곳은 日요일이 되면 美國의 히피가 모여드는 곳으로서 이름 있는 公園이다.

다른 것은 지면관계로 더 말하기 어려워서 이 글을 끝맺기로 하고, 우리 나라에서 Boston을 가장 먼저 찾아 간 바 있었던 舊韓國時代의 名士 俞吉潁氏에 관해서 들은 바를 적어 보기로 하자. Boston市에서 海邊가를 따라 東北쪽으로 約15마일 정도 가면 Salew이라는 都市가 있다. 筆者도 이곳을 일부터 찾아 보았지만 이 Salew은 Boston의 위성도시로서 19世紀 前半期에는 中國의 廣東과 무역하던 港口였다고 한다.

그런데 1883年 7月下旬에 親善使節團의 一員으로 수행했던 俞吉潁氏는 귀국치않고 當時 Salew市의 Edward Morse 教授의 指導로 Dummer Academy에 入學하여 修學하다가 1884年 10月에 甲申政變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해인 1885年 가을 한국에 돌아 왔다고 한다. (韓國開化史研究 李光麟 著 一潮閣 1969. p258 ~274 參照)

이와 같이 마사츄세츠州에 있는 Boston은 온 美國의 開拓史나 獨立史上 重要視되는 地點임은 말할 것도 없고 韓國開化時代의 歷史에서 본다면 해도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하겠다.